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1-10)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아사셀 염소이다.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광야에 가서 죽은 염소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다. 읽어보시면 아시는데로, 그 염소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이 된 염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광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하는 일은 237과 맞아야 한다. 인간의 사상과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신자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237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표본이다. 국가는 어떠해야 하며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났다. 항상 그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속국도 되고 그랬다. 말씀에 맞을때에는 다른 나라는 망해도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천년동안 방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방향으로 갔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 결과는 후손들이 이천년동안 방황하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로 살아야 할 이유이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언약을 놓쳤다. 힘드니까 기도는 많이 했다. 그런데 언약을 놓쳤다. 바벨론에 포로가 될 그 때도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어 이야기 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다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사단 따라가게 되었고 결과는 70년 포로생활이었다. 이런 내용은 성경만 아니라 세계사를 배워도 나온다. 나는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기독교나 예수님을 모를때라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배웠다. 나는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까 해서 외웠을 뿐이다. 세상 역사 속에서도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만 하나님의 눈으로 기록해냈다. 이유, 원인 써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부작용 온다. 이렇게 살면 가만히 있어도 축복온다. 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온 저주를 짊어지고 끝내셨다는 것이다.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한다. 그 목적지는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나올때에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잘 아는데로 난리났다. 그정도 하면 전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이다. 70년간 포로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사자굴 사건은 흥해 사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래서 바벨론이 큰 나라인데,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였다. 큰 나라였다. 적어도 그 나라에는 소문이 싹 퍼졌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 결국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나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야 한다. 잘 안된다. 그래서 흑암세력을 꺾어야 한다. 나는 아는데 안되는데, 그래서 그게 사단인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하나님과 말씀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1. 아사셀 염소

오늘 본문 전체는 이스라엘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에 7월 10일은 하루 정해진 모든 백성의 속죄를 하는 날이다. 그 때부터 세계복음화이다.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지나가다 있던지 다른 일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0절을 보면 이 날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고 31절에는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다. 속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지금은 어떤 규례로 바뀌었는가? 예수님

을 믿음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규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전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도 화려한 대제사장옷이 아니라 속죄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인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제물도 다 써냈다. 자신을 위하여 솥송아지 하나를 드리라고 했다. 번제를 위하여 솥양한 마리를 취하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 두 마리, 오늘 보려는 것은 그 두 마리중에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써냈다. 염소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물 하나는 아사셀 염소이다. 이 둘중에 아무렇게 선택하지 말고 제비를 뽑으라고 했다. 하나님이 제비를 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 그리고 9절에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이것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멀리 보낸다는 뜻이다.

오늘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다.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저주의 원인이데, 죄와 저주를 전부 머리에 다 두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미리 정한 그 사람이요 하여금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게 한 것이다.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이르면 광야에 놓으라고 하였다. 그 염소를 끌고 멀리 가는 것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는 것이다. 가기 힘든 땅, 또는 돌아오기 힘든 그 장소까지 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에 거기서 염소를 두고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이다.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 풀이 많은 곳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다. 광야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사진을 보면 돌과 모래 뿐이다. 그리고 다시 못 돌아오는 데까지 데려다 놓고 오는 것이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중 하나이다. 모든 대속죄일 행사가 끝나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행사를 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이다. 그리고 못 돌아온다. 사람은 돌아오는데, 염소는 못 돌아온다. 거기서 죽는 것이다. 굶어 죽을수도 있고 짐승에 먹힐수도 있고, 어쨌든 못 돌아온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중에 하나여야 한다. 우리의 불의와 저주를 지고 광야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아사셀 염소가 된 것이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면 염소는 두고 사람은 돌아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광야같은 고통을 의미한다. 우리 중에는 애완동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아주 좋아하실텐데, 굉장히 아끼고 그런다. 자기는 병원 안가도 애완동물은 수술도 하고 그런다. 옛것제 어떤 분이 등산에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 발에 신을 신겨서 왔다. 나는 처음 봤다. 맨땅을 걸으니까 구두발같은 소리가 났다. 애완동물 가진 분들은 정을 많이 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물은 돌아오지 못할 땅에 두고 나는 돌아왔다고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주일은 울 것이다. 그 만큼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걸 어떤 이유에서 그냥 두고 혼자 돌아와야 한다면 어땠겠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많은 마음중에 하나이다. 너무 죄송하다. 생각을 해보면 뭐라 말을 못한다. 거기다 두고 나는 오는데 지 혼자서 남아 있다. 우리가 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엄마라 아빠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사셀 염소이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죄송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여기만 잡혀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확인할 한가지는 죄도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는 저주의 원인이다. 아사셀 염소가 나의 죄와 저주를 지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사셀 염소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듯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이것 확인해야 한다. 이거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안 믿는 경우가 많다. 믿어야 역사하고 믿어야 저주가 떠나간다. 믿어야 죄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죄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할 자리가 없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잘 안생길수 있다. 내가 이것을 안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영원히 나는 이제 죄와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사셀 염소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고 하였다. 아사셀 염소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할 그 자리로 죄와 저주를 보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잡아야 할 언약이다. 슬픔에 잠겨서 계속 울기만 하면 굉장한 마음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되겠는가? 축복이 있기 바란다. 언약 잡고 믿고 저주에서 해방, 저주에서 싸우는 능력, 영적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2. 누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려야 한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아사셀 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약속중 하나를 말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답이다. 이제 죄와 관련된 모든 저주는 끝났다는 것이다. 내 저주는 멀리 가버렸고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속은 것이다. 분명 멀리 갔다. 그리고 못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지, 아니 있잖아, 이러한 속은 것이다.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과정에 불과한데,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이 저주인가? 아니다. 결론을 믿고 있는자,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은 과정이 문제가 안된다. 우리가 갈 결론이 어디인가? 오늘 아사셀과 관련해서? 저주는 없다. 그런데 저주같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과정이다.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때 무엇을 이루었는가? 믿으면 천국을 본다. 이것은 다 믿는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 믿음이 완전 들어간다. 그 뿐이 아니고 저주가 끝났다는 것이다. 믿는가? 그런데 왜 저주가 있는가? 그러니 과정이다. 답은 무엇인가? 저주는 없다는 것이다. 과정에 불과하고 역전되고 축복되고 발판이 될 것이다. 성경의 결론이다. 믿어야 한다. 이것 안 믿고 뭘 믿는가? 저주는 끝났다. 오늘 다시 죄를 지어도 죄문제는 없다. 그 죄 때문에 저주같은 문제가 와 있었도 끝은 저주에서 해방이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다. 믿기 바란다. 믿음 없이 누려지는가? 안된다.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3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안다. 단지 죄에 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면 안된다. 죄에 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는데, 죄를 지어도 사단의 종이 안될 수도 있다. 죄를 누릴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물론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끝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인가? 저주는 없는 것이다. 오늘 내가 죄를 누려도 나는 거기에 간다는 것이다. 왜? 믿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누리는 그 죄에서 나오는 날을 주실 것이다. 사건을 통해서 나올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수도 있다. 왜냐하면 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 사단에게 속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끝은 모든 죄 끝나는 것이다. 내가 특정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영적문제 1번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끝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 백색이 되겠는가? 안된다. 그건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이 건 왜 이러냐고 고민하는 그건 분명 해결되게 되어 있다. 죄를 인하여 저주에 들어가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잊으면 안된다. 답은 무엇인가? 저주에서 해방이다. 지금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답은 무엇인가? 저주에서 끝났다. 안 돌아온다는 것이다.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이다. 놀랍다. 나는 오늘도 언약하여 계속 죄를 짓는데, 그래도 관

찮다., 답은 너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은 사단 하나 뿐이다. 지는 기억해도 필요 없다. 그것 가지고 공격해도 괜찮다. 그리고 나도 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은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거 하나님 박살 내주세요. 분명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때가되면 된다.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것이 모든 언약중의 최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나와야 한다. 증인되어서 사람 살리는 것이 바쁘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두 번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누려야 한다. 간단하다. 삼직, 그것이 복음이다. 그 삼직에서 성경 한권 나왔다. 그걸 매일 고백하고 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냈다. 너무나 죄송하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에까지 가서, 돌아오지 못할 거기까지 갔냐 이말이다. 대신 너무 죄송하지만 감사하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전부 끝내셨다. 다시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그 날, 우리의 죄와 저주에 대한 것을 모두 해결해주셨다. 이론 아니다. 이론 아닌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론이 아닌 것을 개인이 어떻게 알겠는가? 누림에 이르면 알게 된다. 고백을 해보면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응답 한 개가지고 이런 깨달음 말 못한다. 지속되고 계속될 때 그렇구나 하게되는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기 바란다.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으로 승리하고 내 인생이 증언되어야 한다. 이것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이거 하나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된다. 죄를 짓고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어서도 복음은 전해라. 왜냐하면 나는 영적 상태가 엉망정황인데 거기에 신경쓰느라 복음 못전하면 세월 지나서 후회한다. 어떤 때는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누가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안가면 나중에 나고 나서 후회된다. 아니면 죽을 수든 말든 가서 했으면 뭘텐데..그러면 나중에 영적 문제 나고 나서 잘했다는 생각 드는 것이다.

우리는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음부의 권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이긴다. 저주는 이미 모두 끝났다. 거기에 천국열쇠를 주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 간다. 24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다. 정말로 내가 24시간 이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이 놀라운 비밀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무리 작은 기도응답이어서도 시공간초월해 역사한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기도응답 받아도 시공간초월이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작고 언약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여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계신다. 애가 오늘 왜 시간을 지르냐? 울기는 왜 울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실시간으로. 놀랍다. 우리 지구만 아니라 우주를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파송하신다. 안 보여도 다 아는 일이다. 사단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도 이것이 살아서 나에게 이런저런 소리 해도 필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고백할 것이다. 오늘도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고 쳐들어 왔지만 전보다는 덜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앙연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허락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사단은 절대 이길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설수 없다. 사단이 넘어 서겠는가? 말도 안된다. 절대 불가능.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거 필요 없다. 한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기 바란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잡기 바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되어 있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의 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끝났다는 것이다. 내 인생중의 모든 저주와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옆길로 가는 것은 다 부질없는 길이다. 물론 나도 예전에 많이 그랬다.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하는 사이에 많이 고쳐졌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시편 139:2절에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다. 내가 늙는것도 아시고, 내 혀의 말중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다. 아사셀의 염소가 되기 까지 근본 죄와 저주를 해결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이 죄와 저주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못 돌아올 곳까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갔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사단은 방해할 것이다. 전쟁 붙어야 한다. 지속하면 자꾸만 더 이 믿음이 누림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